동신대 간호학과 62대 1

광주·전남 수시 1학기 마감 '취업' 유리학과 초강세

광주·전남 주요 대학의 2007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에서 간호학과·약학과·초등특수교육학과·유아교육학과 등 취업이 비교적 잘되는 학과의 경쟁률이 최고 62.5대 1에 이르는 등 초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표〉

광주여대의 경우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원서 접수한 결과, 108명 모집에 887명이 접수해 8.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간호학과가 4명 모집에 106명이 지원, 26.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초등특수교육학과도 3명 모집에 55명이 지원, 1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미용과학과는 12명 모집에 188명이 접수해 15.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외 치료특수교육과 13.5대 1, 스튜어디스학과 11.1대 1, 유아교육과 1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95명 모집에 1천166명이 접수해 5.98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광주대의 경우 유아교육과가 8명 모집에 153명이 지원, 19대 1로 가장 경쟁률이 높았다. 주얼리디자인학과 11대 1, 관광학부 9.6대 1, 경찰법행정학부 9.4대 1, 사회복지학부 9.2대 1 등이었다.

동신대는 330명 모집에 1천642명이 지원해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2명 뽑는 간호학과에 125명이 지원, 6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소방행정학과는 6명 모집에 231명이 지원해 3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호남대는 346명 모집에 1천370명이 지원해 3.9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간호학과의 경우 3명 모집에 137명이 지원해 4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기공학과도 5명 모집에 85명이 지원 17대 1, 유아교육학과도 5명 모집에 60명이 접수해 1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여대 관계자는 "대학 졸업생들의 극심한 취업난을 반영하듯, 2007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에서 취업이 잘되는 학과 선호도가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전남 주요대학 수시1학기 경쟁률

대학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광주대	298	1,306	4.38대1
광주여대	108	887	8.21대1
남부대	150	821	5.47대1
대불대	162	731	4.5대1
동신대	330	1,642	5대1
목포대	193	1,438	7.45대1
가톨릭대	13	103	7.92대1
순천대	276	1,241	4.5대1
조선대	801	2,712	3.4대1
초당대	130	831	6.39대1
호남대	346	1,370	3.96대1

기독교 '구원론' 논쟁 마침표

가톨릭·루터교·감리교 서울서 합의 공동선언

감리교, 루터교, 로마 가톨릭 간 '의화 교리에 대한 합의 공동선언문'(Jointed Declaration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이하 JDDJ 문서)이 서울에서 발표됐다.

제19차 세계감리교대회(WMC)를 주관하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신경하)는 23일 "감리교, 루터교, 로마 가톨릭 대표들이 오후 서울 금란교회에서 열린 WMC 에큐메니칼 예배에 참석해 'JDDJ 문서'에 공식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명식에는 발터 카스퍼 추기경, 선데이 음방 WMC 회장과 로버트 그립번 박사, 루터교 세계 연맹의 이스마엘 노코 박사 등이 각각 로마 가톨릭과 감리교, 루터교 등을 대표해 참석했다. 그 밖에도 한국 가톨릭을 대표해 김수환 추기경과 최창무 대주교(광주대교구), 김희중 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 간 대화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1999년 로마 가톨릭과 루터교 간 공동 합의사항에 감리교가 동참한다는 데 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로써 교회일치운동에 가속이 붙게 됐다. /연합뉴스

▲'의화 교리' 논쟁="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함께 선행을 실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 교회의 입장과 "개인의 신앙만으로 구원된다"는 루터교의 교리가 충돌하면서 빚어졌다. 구원의 문제를 놓고 16세기 초 벌어진 이 논쟁은 기독교가 가톨릭과 루터교로 분열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가 1999년 '선행의 실천'과 '개인의 신앙'을 조화시킨 공동 합의에 도달했다.

햇빛이 그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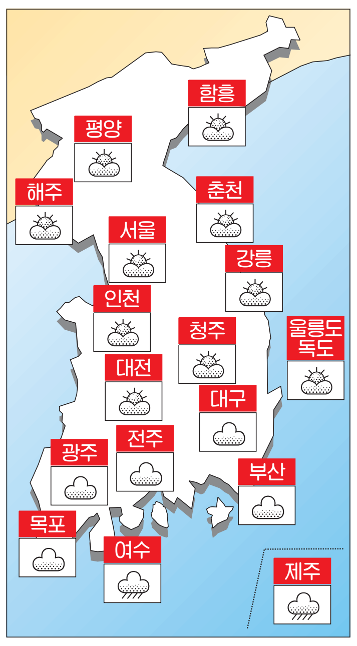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해안 일부지방에 비가 오겠다.

7월 24일
(음 6월 29일)
◇전국날씨

광 주	흐림	20~25℃
목 포	흐림	21~26℃
여 수	흐리고 비	21~25℃
완 도	흐리고 비	20~25℃
구 례	흐림	20~25℃
해 남	흐리고 비	20~25℃
장 흥	흐리고 비	20~25℃
고 흥	흐리고 비	20~26℃
순 천	흐림	20~26℃
영 광	흐림	20~27℃
진 도	흐림	21~26℃
전 주	흐림	20~28℃
남 원	흐림	19~27℃
정 읍	흐림	19~27℃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01:50 13:35 썰물〈 07:15 19:02
여 수 밀물〈 08:29 21:10 썰물〈 02:42 14:33



▲해뜸 05:35 ▲해짐 19:42 ▲달뜸 04:08 ▲달짐 19:2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5(화)	26(수)	27(목)	28(금)	29(토)	30(일)
날 씨	☂	☂	☂	⛅	☁	⛅
최저/최고	20/25	21/26	21/26	23/31	23/29	23/31

장마 영향 남해안 일부 흐리고 비

27일까지 '그쳤다, 내렸다' 반복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4일 완도·여수 등 남해안 일부 지방은 흐리고 한 때 비가 올 전망이다.

예상강수량은 5~10㎜로, 기습 폭우나 강한 돌풍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마전선은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번 비는 27일까지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계속된다"고 예보했다.

장마가 끝나는 시점에 대해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하게 되면 장마전선을 북쪽으로 밀어올려 장마가 끝나게 되지만, 지난 19일 미국 괌 서남서쪽 약 490㎞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5호 태풍 '개미'(KAEMI)가 대만 타이베이 쪽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수증기를 몰고 와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실적 부진·방만 운영한 '지방대 역량강화 사업단'

36곳 선정 취소·예산 삭감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사업 지원대상 사업단 가운데 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비를 방만하게 집행해온 36곳이 선정취소 또는 예산삭감 조치를 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누리사업 지원을 받는 122개 사업단에 대한 2차년도 연차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광주대 '광주·전남권역 자격증 클러스트를 통한 관광전문인력양성사업'(소형)등 2개 사업단(15억원)에 대해 사업단 선정 자체를 취소했다. 호서대·공주대·고려대 서창캠퍼스·대구대·진주산업대 등의 34개 사업단에 대해서는 63억원의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단은 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간 모두 1조3천600억원이 투입되는 누리사업은 그동안 대학 구조개혁 촉진 등의 성과에도 불구, 일부 대학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타낸뒤 방만하게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교육부는 그러나 사업실적이 우수한 12개 사업단에 대해서는 13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최우수 사업단에는 연세대 의공학 사업단이 뽑혔고 군산대 텔레메틱스 사업단과 진주국제대 식품산업단의 경우 2년 연속 우수사업단으로, 한밭대와 경상대는 각각 2개 사업단이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됐다.

교육부가 2년 간 누리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109개 대학에서 1만2천26명의 정원을 감축,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군살빼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누리사업을 통해 전체 지방대 학생의 5.8%, 누리사업 참여학생의 60%인 11만여명에게 장학금이 돌아갔고 2만여명에 대해 현장실습 등을 통해 적합성 높은 전공교육을 실시하는 등 취업경쟁력을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일본 뇌염 경보 발령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3일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모기가 전체 모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주와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50%를 넘어섬에 따라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만 15세 이하 자녀가 뇌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인근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도록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일본 뇌염 환자는 2001년 1명, 2002년 6명, 2003년 1명, 2005년 6명 등이 각각 발생했다.

일본 뇌염은 초기에는 고열과 두통,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키다 의식장애와 혼수상태로 빠져들면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치유되더라도 언어장애·판단능력 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는다.

/서민정기자 viola@

비 갠 들녘 병충해 방제 23일 장마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자 전남도내 농민들은 장마 뒤끝 병충해 방지를 위해 논에 농약을 살포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냈다.

/영암 신북=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포스코 점거농성 주도 58명 영장

노조원 57명은 불구속 입건

경북지방경찰청은 22일 포스코 본사 불법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일반건조물 침입,업무방해,폭력 등)로 포항건설노조 위원장 이모(39·포항시 북구)씨 등 주동자급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점거농성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연행한 노조원 57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3일 오후 포항시 남구 괴동동 포스코 본사에 경비원들을 밀치고 들어가 점거한 뒤 9일간 농성을 벌여 포스코 행정관리 업무에 차질을 빚게 했고 12층 건물 사무실과 구내 집기 등을 훼손해 재산상 손실을 입힌 혐의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상은 이씨와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집행부 16명, 선봉대장 김모(45)씨 등 각 분과 및 민노총 간부 등이다.

/연합뉴스

외국어 교육 1번지 광주외국어학원

◆ 고교생 시작반 4명 전원 3주 시작 후 기말고사 성적 수직 상승

성명	학교	성적향상	강의평가
#8679 : 임OO	살레시오 1	70⇨10154 : 91.6(반1등)	이번 시험에 반1등 했어요.
#8679 : 하OO	숭일고 1	82⇨10154 : 84	선생님, 정말 실력 있다.
#8679 : 임OO	동신여고2	70⇨10154 : 87	2주 만에 17점 올랐어요.
#8679 : 임OO	대광여고2	50⇨10154 : 70	선생님강의 특별한 데가 있다.

◆ 중·고생 강좌 안내 : 내신은 학원에서 책임진다. 영어를 배우자!!!

강의제목	강사	내용/교재	비 고
명품 어휘	서심종	능률 voca⇨TOEIC voca⇨계속	1개월 완성 X 2회
명품 문법	Daniel Cho	교과서에서 토플완성까지 ⇨자체제작	내신은 학원에 맡김
명품 독해	Daniel Cho	교과서+성문기본+성문종합+토플+CNN+각종 외국 언론 종합 교재 ⇨자체제작	영어달인의 솜씨로 전 세계 영어를 통합한 독해 교재 (고전에서 현대까지)
명품 영작번역	Daniel Cho	영문법영작+토플에세이185제 +번역	영작분야에서 가장 쉬운 강의
명품 회화듣기+통역	Kay(미국인)	고교생듣기⇨미국대학교 교실영어 CD⇨방송청취	완벽한 bi-lingualist 미국인 강사의 특강

◆ 수강 대상 : 중학생도 아래처럼 전교 30등 기준으로 반 편성 수업

구분	통·번역사반	준통번역사반	비고
고1	전교 30등 이내	영어성적 65점 이상만	성적표 제시
고2	전교 30등 이내	영어성적 65점 이상만	성적표 제시
고3	특목대(SKY포함 ⇨전교15등 이내만	수능 등급 최소 2계단 향상반⇨영어모의고사 65점 이상	성적표 제시

앞으로 광주가, 대한민국이 이 강의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 초등부 강의 시작 : 드디어 기다리던 7월 24일

우리는 대한민국 영어 최고 고수가 된다.
I & T ENGLISH :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어휘와 발음을 모두 함께 잡아가는 Total English Master Method (특허청 상표 출원)

◆ 초등생 프로그램

① 대상 : 초등 4학년부터 6학년까지
② 각반 8명 정원
③ 2년 교육 후 전원 TV 출연해 시범 예정
④ 엄격한 상담과 테스트 후 입학 결정
⑤ 마감 주의!!! 6학년은 이번 기회 놓치면 엄청 후회!!
⑥ 최소 상담만이라도 해 두어야!!

◆ 강사 소개

서심종 VOCABULARY	Daniel Cho 문법·독해·영작	외국인 강사
▶한국외국어대 에스파냐어과 2년수료 ▶전남대 영어영문과졸, 영자신문사근무 ▶왕십리 대영학원 영어어휘 +독해 전문강사 ▶서울 대치동 한국학원 영어어휘 +성문종합영어 ▶노량진 한샘학원 어휘전문 대표강사 : 5500 VOCA -서울대, 연대, 고대 고시반 영어 담당 ▶전) 충장외국어학원 장 ▶전) 국제외국어학원 학력고사 전임 ▶영어-스페인어-한국어 사전 편찬 ▶그 외 다수	▶대학 재학시절 TOEFL 2권 암기(이재옥, 김인숙 TOEFL), 모든 TOEFL 책 섭렵 ▶전남대졸, 영어 영문학 석사(번역전공) ▶영문1급 번역사⇨한국번역가협회 ▶한⇔영 번역 이보다 많이 한 사람 없다. ▶아시아 자동차 브라질 프로젝트 1만 페이지 한⇨영 번역 책임자 ▶고흥 우주 산업 책임 번역 (한⇨영, 영⇨한) : 2005년부터 계속 ▶전라남도도청의뢰, 전라남도각시군 관광지 소개(한⇨영) : 2006년 2월 ▶현)한국번역연구원(KTI.OR.KR) 사무국장, 전국 번역 사업 본부장 광주 번역 통역원 원장	♥ 영어 회화 : Kay ♥ 중국어 : 장린 ▶중국 연대 사범대 한국어과 졸(한족) ▶한국 고전 연구 ♥ 일본어 : 박영주 ▶일본동경 [illegible]외국어학교 졸 ▶일본 동경 외어전문학교 일한 통역과 졸업 ▶일본어 능력 1급 ▶1996년 ~2005년 10월까지 일본거주

광주외국어학원
광주 동부 경찰서 맞은 편
☎ 431-4788
1600-4788
016-608-4788

자매 기관 : 한국 번역 연구원 호남 본부(KTI.OR.KR), 광주 번역 통역원

광주외국어학원 예술의 거리
전일빌딩 ←
남도예술회관 동부경찰서

템피아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70% 에너지 절감

미국에서도 특허받은 히트펌프 6단계시스템
에어컨+난방기를 1대로
난방시 연료비가 70%이상 절감됩니다

★산자부에서 에너지 합리화자금 지원★
(3년은 이자만 내시고 5년간 나누어 내시면 됩니다)
12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조달청 우수 조달 물품 지정☆

MBC
에어컨을 거꾸로 가동시켜 실내를 난방하는 신기한 기술
공기중 조열 사용으로 난방비 70%절약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난방기
MBC 9시 뉴스데스크(2004.12.9)

KBS
600평 공장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기술
기존 냉·난방기의 단점을 보완하여 보조히터 없이 한겨울에도 40도 이상의 더운 온도가 나오는 냉·난방기
KBS1TV 7시 뉴스광장(2001. 12. 26)

TPF-601B
TPU-3501B

TEMPIA 템피아
문의전화 (062)222-7118
080-775-7117
2년 무상 A/S